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AI가 선택하는 시대...소비자는 '인간적 가치'에 주목

한다혜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 연구위원

AI 대전환 시대 소비문화 변화 진단...10대 키워드 제시
기술 발전할수록 원조·진정성 중시하는 '근본이즘' 부상

"인공지능이 산업과 조직, 소비문화 전반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기술 자체보다 인간적인 가치와 진정성을 더 찾고 있습니다."

한다혜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 연구위원은 지난 18일 광주 서구 치평동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강연에서 '대한민국 소비트렌드의 흐름과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 연구위원은 이날 강연에서 "2026년은 AI 대전환의 시대"라며 "불과 2년 전만 해도 AI를 이미지 생성이나 글 수정, 번역 등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사용했지만 현재는 감정 상담까지 AI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이것이 정신건강에는 단기적으로 유익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을 정도"라며 "이렇게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동반자의 영역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2026년 AI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를 10가지 키워드로 소개했다.

10가지 키워드로 휴먼 인 더 루프, 필코노미, 제로 클릭, 레디코어, 픽셀 라이프, AX 조직, 프라이스 리코딩, 건강지능, 1.5가구, 근본이즘 등을 제시했다.

먼저 '휴먼 인 더 루프'는 AI를 사용할 때 적어도 한 번은 인간의 손길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AI를 너무 믿었을 경우 할루시네이션(환각)과 같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며 "AI가 크게 발전했지만 아직 인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소개된 필코노미는 소비자가 자신의 기분을 진단하고 관리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제를 뜻한다.

한 연구위원은 "예전에는 명품 립스틱이나 향수처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상품에 돈을 많이 사용했지만 고급 치약처럼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기본전환형 소비가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검색 시장 역시 AI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제는 클릭조차 필요 없는 '제로 클릭(Zero Click)'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과거에는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AI가 선택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최적화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가 검색은 물론 구매 결정까지 대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불확실한 시대에 실수를 줄



지난 18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에서 한다혜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이 '소비트렌드로 바라보는 2026 대한민국'을 주제로 강의 하고 있다.

이기에 "이제는 클릭조차 필요 없는 '제로 클릭(Zero Click)'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과거에는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AI가 선택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최적화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가 검색은 물론 구매 결정까지 대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불확실한 시대에 실수를 줄

이기에 "이제는 클릭조차 필요 없는 '제로 클릭(Zero Click)'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과거에는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AI가 선택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최적화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가 검색은 물론 구매 결정까지 대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불확실한 시대에 실수를 줄

이기에 "이제는 클릭조차 필요 없는 '제로 클릭(Zero Click)'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과거에는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AI가 선택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최적화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가 검색은 물론 구매 결정까지 대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불확실한 시대에 실수를 줄

이기에 "이제는 클릭조차 필요 없는 '제로 클릭(Zero Click)'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과거에는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AI가 선택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최적화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가 검색은 물론 구매 결정까지 대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불확실한 시대에 실수를 줄

효령노인복지타운, 도예체험으로 세대통합 가치 실현

사회서비스 물결주간 맞아 50여명 참여
어린이·학부모·어르신 함께 소통·교류

광주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사회서비스의 가치를 알리고 세대 간 소통을 확대하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광주 효령노인복지타운(이하 효령타운)은 최근 효령타운 도예실에서 사회서비스 물결주간을 맞아 어린이와 학부모, 어르신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대통합 도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효령타운 노인일자리사업인 '오손도손체험마을' 참여 어르신들과 참빛어린이집 원아, 학부모 등이 함께 어울리며 세대 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흙을 빚어 자신만의 점시를 만드는 체험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의 호기심과 부모 세대의 관심,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어우러지면서 세대 간 벽을 허물고 공감대를 넓혔다.

특히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어르신들은 아이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사회참여의 보람과 자긍심을 느꼈다. 어린이와 가족들 역시 어르신들과의 교류를 통해 존중과 배려의 의미를 배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체험은 단순한 만들기 활동을 넘어 세대 간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경남 효령노인복지타운 본부장은 "사회서비스 물결주간을 통해 시민들이



광주 효령노인복지타운은 최근 효령타운 도예실에서 사회서비스 물결주간을 맞아 어린이와 학부모, 어르신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대통합 도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회서비스의 의미와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효령타운은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

가 함께 어울리며 사회서비스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글=사천=최기남 기자 bluesky@



화순군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정부혁신 유공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제공=화순군청

화순군, 정부혁신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소통·협력 행정 강화...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도

화순군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정부혁신 유공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82개 군 가운데 1위를 차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주민 체감 성과, 협업 및 디지털 전환 등 정부혁신 전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군은 새 정부의 혁신 방향에 발맞춰 소통과 협력 기반 행정을 강화하고, 인공지

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주민 체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혁신 사례는 △24시간 응급실 확대 운영 등을 통한 응급안전망 구축(의료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류 이용권의 불편을 개선한 평면한 100원 택시 카드결제 시스템(주민 편의성 제고)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원격 검침(디지털 행정 혁신) △고독사 고위험군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스마트 돌봄 플러그(취약계층 돌봄 강화) 등이다.

화순=규영 기자 vip3355@gwangnam.co.kr

강진군, 이동노동자 맞춤형 교육 성료

현장 교육...노동자 복지 향상 첫걸음

강진군은 최근 성전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이동노동자의 금융 역량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했다.

당초 강진버스터미널 2층에 조성된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장시간 운행과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이동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현장 중심 교육으로 변경해 추진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와 화물차 운전자 등 교육 참여자들은 업무 시작 전 시간을 활용해 부담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총 16명이 수료해 현장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교육은 금융사기 예방, 합리적인 소비습관, 저축 및 자산관리 방법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참



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동노동자의 생활 여건과 근무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 중심 교육이 진행돼 교육 효과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복지사업을 확대해 이동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 장기요양제도 설명회

요양기관 종사자 사업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 본부는 최근 광주 서범타루 문화예술회관에서 장기요양 제도 이해를 위한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8주년을 맞아 장기요양기관협회와 협업으로 이뤄졌다.

장기요양기관 156개소 종사자 261명이 참석했으며, 본부는 통합돌봄 및 통합재가, 재택의료시범사업 등 공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통합돌봄 등 장기요양 제도 이해와 급여제공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AI 스마트 돌봄 운영 교육을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본부는 공단의 대표 모바일앱 '건강보험25시' 설치와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도



진행, 비대면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은 "장기요양기관과의 상생 협력으로 올바른 제도 이해의 장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제도 정착 결연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2back@gwangnam.co.kr

GICON '시민참여형 광주천 가꾸기' 정화활동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최근 광주천 일원에서 ESG 경영 실천과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형 광주천 가꾸기'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시민참여형 광주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GICON 임직원 약 60명이 참여해 광주사회복지회관 인근 천변부터 양동시장역 구간까지 광주천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하천 주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하며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GICON은 ESG 경영 실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환경보호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시민참여형 광주천 가꾸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